

면허 강화 틈타...운전학원 수강료 암체인상

경사로 코스·직각주차 부활...기능 합격률 93%→30%로
최고 18만1천원 인상...학원들 “교육시간 늘어나 불가피”

운전면허 따기가 어려워지면서 운전면허학원들이 수강료를 대폭 인상해 수강생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특히 시험에 떨어져 재응시해야 할 때마다 재시험 검정료에 웃돈을 요구해 불만이 높다.

10일 광주지방경찰청과 광주지역 운전면허학원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2일 장내기능시험이 강화된 새로운 운전면허시험이 시행되자 운전면허학원들이 일제히 수강료를 인상, 최고 44.5%까지 올렸다. 운전면허시험이 강화되는 틈을 타 수강료를 인상한 것이다.

개선했던 운전면허시험은 장내기능시험에 기존에 없었던 경사로 코스와 직각주차(T자 코스) 등이 추가됐다. 주행거리도 50m에서 300m 이상으로 늘어나는 등 합격기준이 강화됐다. 이로 인해 기존 92.8%의

장내기능시험 합격률이 30%로 떨어졌다.

의무교육시간도 개선됐다. 전체 의무교육시간은 13시간으로 동일하다. 하지만, 학교교육은 5시간에서 3시간으로, 장내기능은 2시간에서 4시간으로 조정됐다. 도로주행은 6시간으로 기존과 같다.

경찰청도 면허시험제도 개선에 따라 의무교육시간이 이론보다 실습이 강화되면서 취득비용이 기존 40만원에서 48만원으로 8만 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운전면허학원들은 수강료를 적게는 13만원에서 많게는 18만1000원까지 대폭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A운전학원은 시험제도가 바뀌기 전 40만7000원이던 수강료를 58만8000원으로 44.5%(18만1000원) 인상했다. B운전학원은 43만 원에서 59만9500원으로 39.4%(16

만9500원), C운전학원은 43만 원에서 58만9000원으로 37%(15만9000원), D학원은 43만 원에서 58만1000원으로 35.1%(15만1000원), E학원은 48만5000원에서 61만5000원으로 26.8%(13만원)씩 올렸다.

이는 경찰청이 예상한 8만 원 인상보다 적게는 1.6배(13만원)에서 많게는 2.3배(18만1000원) 올린 셈이다.

게다가 기능시험과 도로시험에 떨어져 재응시를 하는 경우 각각 응시료를 별도로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 수수료가 각각 1만8500원, 2만5000원인데도 학원에서는 재응시 때마다 기능·도로주행 검정료를 각각 4만4000원씩을 받고 있어 수강생들의 불만이 높다.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수강생 주모(25)씨는 “전체 의무교육시간은 같은데 학원에서는 왜 ‘기능교육시간이 늘어났다’라며 수강료를 올리는지 모르겠다”며 “시험 개선 전과 비교해 수강료가 10만 원

넘게 올라 부담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수강생인 김모(20)씨는 “대학 입학 전에 운전면허를 따려고 학원에 등록했는데 수강료가 너무 비싸 놀랐다”며 “시험에 떨어져 다시 응시할 때마다 내야 하는 검정료도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운전면허학원들은 장내기능교육이 2시간 늘어남에 따라 학원비를 올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 학원 관계자는 “장내기능교육시간도 2시간 늘어났을 뿐더러 학원 내에서 시행하는 기능시험 또한 바뀌면서 인건비를 올릴 수밖에 없어 학원비가 오른 것이다”고 설명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은 운전면허시험이 개정되면서 취득 비용이 40만 원에서 48만원으로 8만원 오를 것이라고 예측했다”면서 “하지만 운전면허학원들이 기존없이 임의대로 수강료를 높게 책정하면서 폭리를 취해 수강생들의 부담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41 해질 16:36
해진 17:40 달뜨기 06:00

다시 찾아온 한파

바람이 강하게 불고 체감온도가 낮아져 춥겠다.

◇지역별 날씨(℃)

광주	맑음	-3/5	보성	맑음	-5/4
목포	맑음	-2/5	순천	맑음	-3/6
여수	맑음	-3/5	영광	맑음	-5/4
나주	맑음	-3/5	진도	맑음	1/5
완도	맑음	-1/5	전주	맑음	-4/4
구례	맑음	-5/4	군산	맑음	-5/5
강진	맑음	-3/5	남원	맑음	-7/3
해남	맑음	-3/5	흑산도	맑음	1/5
장성	맑음	-4/4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북서~북	0.5~1.5	북서~북	0.5~1.0
	면바다	북서~북	1.5~3.0	북서~북	1.0~2.0
남부	앞바다	북서~북	0.5~1.0	북서~북	0.5~1.0
	면바다(동)	북서~북	1.0~2.0	북서~북	1.0~2.0
	면바다(서)	북서~북	1.5~2.5	북서~북	1.0~1.5

◇물때

목포	간조	만조
	06:04 18:49	00:32 13:25
여수	01:44 14:27	08:23 20:33

◇주간 날씨

12(목)	13(금)	14(토)	15(일)	16(월)	17(화)	18(수)
-1/8	-1/5	-2/3	-3/3	-3/5	-4/6	-2/7



◇생활지수	
	매우높음
	매우높음
	관심

조선대 발전기금 마련 ‘CU Again 7만2000프로젝트’ 선포



조선대학교(총장 강동완)가 건학 100주년의 기쁨을 마련하기 위해 ‘CU Again 7만2000프로젝트’ 선포식을 열었다. 10일 조선대 해오름관 대강당에서 열린

이행 행사에는 강동완 총장과 박주선 국회의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광주무형문화재인 김용철의 설장구 공연을 시작으로 개회 선언, 국민의례에 이어 미디

어 아티스트 이이남의 ‘Great Chosun, Human University’가 상영됐다. 프로젝트는 지난해 9월 취임한 강동완 총장의 공약으로, 대학 설립동지회원 7만

2000여 명을 상징화해 대학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건학 100년의 기쁨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글=김지을·사진=김전수기자 jeans@

기온 ‘뚝’ 영하권 추위...주말엔 눈

이번 주 초부터 이어지는 한파로 주말에는 눈이 올 것으로 보인다.

10일 광주기상청에 따르면 11일에는 최저기온이 영하 3도까지 떨어지고, 최고기온은 5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됐다. 12일 역시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으며, 기온은 평년(최저 -4~0도, 최고 5~7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 후반인 13~15일에는 차가운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거나 눈이 올 것으로 전망됐다.

기상청 관계자는 “당분간은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기온도 영하권에 머무를 것으로 보이는 만큼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폐지노인 친 택시기사 “운전중 의식 잃었다”

경찰 진위 여부 수사

광주 도심에서 택시기사가 앞서 걸어가던 폐지수집 노인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고 지점이 커브길에 아님데다 사고를 낸 택시기사가 “사고 당시 의식을 잃었다”고 주장하면서 경찰이 진위 여부를 조사 중이다.

10일 낮 12시10분께 광주시 서구 농성동 왕복 9차로에서 전모(32)씨가 몰던 택시에 폐지 수집 노인 이모(72)씨가 치어 숨졌다. 이씨는 당시 수레를 끌고 농성동 방향에서 남구 방향으로 도로가장자리를 타고 걸어가던 중 택시에 치여 10m가량 끌려 간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가 몰던 택시는 주변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승용차 등 차량들을 들이받고 서야 멈췄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사고

로 9중 충돌사고가 빚어졌으나 탑승자 가운데 부상자는 4명에 그쳤다.

사고를 낸 택시기사 전씨는 병원을 찾아온 경찰에 “운전 중 갑자기 의식을 잃었다. 사고 순간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그는 4년 전 차량 충돌사고로 머리를 심하게 다쳐 뇌수술을 받은 뒤 치료약을 꾸준히 복용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구간이 직선 구간인데다 운전자가 과속은 물론 신호위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음주 측정 등 한 결과, 특이점도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택시운전자 전씨를 우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전방주시 의무) 혐의로 입건한 뒤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난폭운전·귀소본능 때문에...딱 걸린 빈집털이

담양 전과범 차선 변경하다 사고 상대 운전자 112 신고에 달미

40대 빈집털이범이 난폭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다가 달미를 잡혔다. 담양경찰은 10일 시골 빈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강모(43)씨를 구속했다. 강씨는 지난해 9월15일부터 지난해 27일까지 담양과 곡성 일대를 돌며 주인이 없는 빈집 4곳에 침입해 600만원 상당의 귀금속과 현금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절도 전과가 다수 있는 강씨는 지난 4일 담양에서 앞 차량이 서행한다는 이유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화가 난 상대 차량 운전자는 강씨의 만류에도 112종합상황실에 사고신고 했다. 경찰은 수차례 범행했던 강씨가 아직도 담양을 오가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행적을 역추적했다. 이동 경로·현장 주변 CCTV에 찍힌 용의자 인상착의 등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공업사에 온 강씨를 긴급체포했다.

/담양=정재근기자 jrg@

북구 50대 집주인과 격투끝 탈출 평소 다니던 곳 잠복 경찰에 걸려

50대 빈집털이범이 귀소본능 때문에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북부경찰은 10일 빈집만 골라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절도) 혐의로 이모(55)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일까지 1달여간 총 7차례에 걸쳐 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출소 후 5건의 절도 범행을 저지른 이씨

는 지난 3일 광주시 북구 용봉동의 문이 열린 빈집에 들어가 노트북과 돼지저금통을 들고나오다 귀가하던 40대 중반의 집주인과 마주쳤다. 몸싸움 끝에 훔친 물건은 물론 걸옷까지 빼앗기고 도주하던 이씨는 주변 공사장 근로자가 벗어 놓은 옷을 훔쳐 입고 도주했다.

그러나 이씨가 평소 자주 배회하던 곳에서는 이미 경찰이 잠복해 있었고, 익숙한 곳으로 도주한 이씨의 ‘귀소본능’ 탓에 곧바로 검거됐다.

/전문기자 ej6621@

창사 40주년, 특별大행사

보청기 1+1 무료!!

보조금 (최대 131만원)

맞춤렌탈

구입

특전

باتدери 5년동안 무료!! A/S 3년동안 무료!!
(렌탈 표준 가입비 없음)

50% 특별大할인

양쪽으로 잘 듣고, 활짝 웃으세요!!

광주 직영점 062)430-8900

순천·여수직영점 061)741-4880

전주직영점 063)251-4999

대한보청기
DAEHAN HEARING AID
www.maxo.co.kr

◆장안본사 02)2248-5600 ◆종로본점 02)743-8100 ◆강남본점 02)542-8500 ◆송파·잠실본점 02)420-2090 ◆영등포본점 02)2637-2800 ◆관악본점 02)3285-7600 ◆인천(부평)본점 032)516-2200 ◆수원본점 031)248-7200 ◆안양본점 031)442-2400 ◆분당본점 031)707-5787 ◆일산본점 031)917-1100 ◆의정부본점 031)840-2001 ◆구리본점 031)551-1310 ◆안산·시흥본점 031)407-2999 ◆천안·아산본점 041)522-1400 ◆청주본점 043)225-2900 ◆대전본점 042)486-9944 ◆대구본점 053)253-4400 ◆대구서부본점 053)657-3700 ◆대구북구(칠곡)본점 053)311-7900 ◆포항본점 054)231-8070 ◆강원(원주)본점 033)731-2114 ◆부산본점 051)819-0038 ◆부산북구(덕천)본점 051)335-7800 ◆울산본점 052)256-9050 ◆창원·마산본점 055)222-3050 ◆광주·전남본점 062)430-8900 ◆전북(전주)본점 063)251-4999 ◆순천·여수본점 061)741-4880